

투데이 칼럼

고창 국화 축제, '한반도의 진정한 문화예술의 수도' 도약 계기 되길

가을이다. 천산만아에 단풍 들고 꽃 핀다. 전국에 가을 꽃 잔치가 벌어진다. 단풍도 아름답지만 형형색색 피는 가을 꽃자리는 그대로 생명의 잔치판이다. 아름답고 눈부시고 향기롭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꽃들의 향연. 코스모스, 구절초, 분꽃, 사근초, 투구꽃, 상사화, 쑥부쟁이... 여러 꽃들 피어든 가을꽃은 국화가 단연 으뜸이다.



윤재웅 동국대학교 교수

서리 내리야 비로소 피는 꽃. 예부터 지조와 절개의 표상이 된 꽃. 올곧은 기상을 가진 선비를 나타내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의 꽃이 곧 국화다. 가을이면 전국이 국화꽃 천지로 변한다. 예서에서 국화 축제를 연다. 지자체도, 학교도, 유명 사찰도 국화꽃 잔치를 펼친다. 유난히 푸른 하늘 아래 흰 국화, 황국화, 일록달록한 국화가 갖은 모양을 뽐낸다. 시골에서 십일월까지, 천지신하는 국화 향으로 진동한다. 고창 '고인돌 공원'에서도 국화 축제가 열린다.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전국에 많은 국화 축제가 있어도 이곳 국화 축제가 유독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4년 11월 고창 선운리 마을 야트막한 산언덕 전체가 노란 국화로 뒤덮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그 기원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불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로 시작하는 <국화 옆에서>의 시인 서정주의 고향이 바로 고창 선운리, 일명 갈마재 마을이다. 여기는 시인의 생가와 기념관과 묘지가 있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곳이다. 시인의 생과 사, 그리고 작품 세계를 고스란히 보존해서 전시하는 기념공간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운명적이다. 모든 게 예비된 듯하다. 시인 서정주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한국문학의 영원한 고향'인 곳. 이곳에 가을이면 국화가 활짝 핀다. 벌써 15년째다. 관 주도도 시작된 게 아니라 돼지 농장을 하던 한 주민의 아이디어와 열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게 특이하다. 그 국화들은 돼지 분뇨로 만든 거름으로 특별하게 성장해서 색깔과 향기가 더욱 짙었다. 꽃이 핀 산언덕은 시인 서정주의 묘역 일대 5천 평. 역 송이즘 피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자 그 색깔과 아찔한 향기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창이 배출한 시인 서정주의 시는 가져갈 수 없는 법. 시 <국화 옆에서>의 콘텐츠는 고창의 불박이 자산으로서 변함이 없었다. 국화가 피는 동안 <미당 문화제>도 열려서 국화의 시인 서정주의 문화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오고 있다. 공간이 좁아 석정 온천지구로 옮겨졌다가 웰파크시티 준공으로 인해 2016년부터 고인돌 공원으로 옮겨진 행사는 고창 국화 축제, 전국의 국화꽃 축제 가운데서도 유독 돋보인다.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세계적으로도 그런 군락지가 드물고 드문 곳. 여기저기 자유롭게 널려 있는 돌이건 조상의 집들. 이를 하여 '한반도의 첫 수도'.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꽃이 피는 밤에 잠 못 드는 내 마음을 노래한다. 한 송이 꽃이 핀다는 건 세상 오만가지 도움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우리는 쉬이 잠들 수 없다는 뜻이다. 어려운 부처님 경전, 두꺼운 성경책 끼고 앉아 조는 것보다 국화꽃밭 거닐면서 시를 읊조려 보는 게 삶의 본질에 훨씬 빠르게 다가설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 서정주의 국화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숙한 아름다움에 도달한 '누님'의 이미지를 가진다. 옛날과 같은 지조 있는 선비도 아니다. 즉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오느라 손발이 부르트든 우리의 어머니, 이모, 누님들이 새롭게 주목받아야 한다고 고창의 국화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화 축제의 차별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의미 등을 보다 깊이 탐구하고, 관민이 지혜를 모아 '보여주기' 식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 보고, 먹고, 걸고, 냄새 맡고, 사진 찍는 경험 너머를 기획해야 한다.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을 생각하고 '잠도 오지 않는 밤'을 문화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재언

술독에 빠진 관공서 주취소란, 그 해답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주취자는 여러 경찰관들의 골칫덩어리이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3조 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법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는 주취 정도에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가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는 행위로 인해 피

해발성이 예상되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까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법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 또한 자신이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배 되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 주량에 관계없이 폭음하는 직장 문화, 술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우리 음주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재욱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계 최장 55km 강주아오 대교 개통식



홍콩과 중국 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강주아오 대교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통식을 거행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전북 발전 프로젝트에 계속 힘을 실어라

지금은 전북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이다. 전라감영 건축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이제 머지 않아 그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기에 기립막으로 가린채 전주시가 건설 현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오가면서 눈길을 주다 보면 기초석 위의 기둥들은 우뚝할 테고 지붕 또한 웅장하고 능률할 거라는 생각이다. 조선시대 때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아울러 관장하던 전주의 위용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이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체 도민의 자존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분명히 그래서였을 것이다. 도지사 "2018년 정도 현안을 맞아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게 연초의 공표였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제 말 그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만 한다.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발전 방향을 밝혔었는데 그 성취를 위해 도민들을 꾸준한 추진을 바라고 있다. 이제 올해도 석 달밖에 안남았는데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안 좋은 일

이 많았다. 군산 현대 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GM 폐쇄 사태와 남원의 서남대 폐교는 다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 넥슬론의 파산 소식도 그렇고 전주 현대자동차의 생산물량 축소 소식도 그렇다. 하지만 전북도는 힘해야 한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서이다. 최근까지도 기금 운용 분부정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 힘찬 재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정부를 향해 전북의 발전이 전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고 강렬하게 말해야겠다. 전북도는 전북의 자존과 재물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우리 지역은 희망하는 바와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에 계속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지금 돌과구를 열지 못하면 지난해보다 더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나이든 기성 세대들은 옛날을 회고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중반에는 거주 인구가 265만을 헤아렸다. 전북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많은 힘을 실어야겠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 좌시해선 안된다

전북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뭔가 다르리라 기대했는데 이전 정부와 발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듣자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센터는 실적 부진한데도 국비 지원액을 뚝뚝 안겨주면서 전북센터의 경우는 그 실적이 뛰어난데도 그 지원액이라는 게 너무 적은 것이다. 국립산림치유원의 경우도 그렇다. 경북의 영주 쪽에는 국비지원 100%로 1480억원을 배정한 반면, 전북의 지리산과 덕유산권은 국비 80% 지원에 827억 원을 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에겐 할 말은 분명하다.재무 행거기에 보통 이상의 힘을 쏟아야겠다. 이같은 말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다. 그래도 지금은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수도권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주 제3 금융도시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지금 전북도의 실력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도민의 분노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낱알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뒷을 온전히 챙겨야 된다. 전북도 스스로 재무 찾기를 강조해 말했었거니와 다른 광역 시도와 그것보다 역척스러워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열망의 열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증폭시켜야 한다.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전북도는 아직도 계속되는 정부의 홀대를 결코 좌시해선 안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